예방 · 초청 · 예방 … 총무원장 집무실은 지도자 네트워크 '축'

연말이 다가오면서 총무원장 집무실이 있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으로 종단 내외 인사들이 발길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1월30일 하루 신임 인사차 예방한 전국비구회 임원진과 경남·강원도지사, 자유선진당 대표가 다녀갔고 하루 앞서 29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이 인사를 왔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1월30일 취임인사차 예방한 회장 명우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임원진과 환담에 이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신재호 기자 air501@ibulgyo.com

"전국비구니회 발전이 곧 종단 발전" 신임 회장 명우스님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취임인사차 예방한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회장 명우스님과 환담했다.

지난 21일 전국비구니회장으로 취임한 명우스님은 총무원장 자승스님에게 전국비구니회 신임 집행부를 소개한 뒤 전국비구니회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전임 회장님이 8년간 전국비구니회를 안정시켰다"면서 "전국비구니회의 발전이 곧 종단 발전이라 생각하고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돕겠다"고 약속했다.

전국비구니회장 명우스님은 "전임 회장님께서 전국비구니회의 기틀을 잘 마련하신데 이어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총무원장 스님의 도움이 필수적인 만큼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방에는 총무원 문화부장 진명스님과 사서실장 심경스님을 비롯해 전국비구니회 부운영위원장 계호스님, 기획실장 효탄스님, 총무부장 경륜스님, 재무부장 정엽스님, 사회부장 보안스님, 비구니회관 법융사 주지 지유스님 등 전국비구니회 주요 소임자 스님들이 배석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교구본사와 우호 증진을"

김두관 경남·최문순 강원지사 초청

김두관

최문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김두관 경남도지사와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환담했다. 이날 예방은 오는 2012년 1월31일 불자 지도자 네트워크인 '불교포럼' 출범에 앞서 불자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참여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김두관 지사와 최문순 지사 초청에 이어 불자인 광역시도 단체장인 박원순 서울시장, 박준영 전남도지사, 우근민 제주도지사도 초청해 불교포럼 참여를 권유할 계획이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바쁜 도정에도 불구하고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불자 지사님과 해당 지역의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이 늘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주며 사이좋게 지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10분 남짓 환담한데 이어 향성무진실로 자리를 옮겨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하며 환담을 이어갔다.

이날 예방에는 제3교구본사 신흥사 주지 우송스님, 제13교구본사 쌍계사 주지 성조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스님, 제4교구본사 월정사 부주지 원행스님 등 경남과 강원지역 교구본사 스님들이 배석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선진당, 충청불교 지원 감사" 심대평 대표와 환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월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사진〉의 예방을 받고 환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충청지역 스님 가운데 심 대표님의 도움을 받지 않은 스님이 없을 만큼 불교계를 위해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내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길 축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배석한 총무원 기획실장 정만스님은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7개의 국가법령으로 불교계가 중첩규제 등 불이익을 받고 있는 만큼 자유선진당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대평 대표는 "자유선진당이 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불교계에서 저희 당을 지지를 해주시기 바란다"면서 "김낙성 원내대표가 전사법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니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환담에는 총무원 호법부장 혜오스님과 사서실장 심경스님, 김낙성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이흥주 최고위원, 황인자 최고위원, 문정인 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박인탁 기자 parkintak@ibulgyo.com

"아는 만큼 외연 챙길터"

곽영진 문체부 1차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지난 11월2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인사차 예방한 곽영진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사진〉과 환담했다.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제가 아는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출신 인사 가운데 제일 잘 풀린 것 같다"면서 "앞으로도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독실한 불자인 곽영진 차관은 "제 소관은 아니지만 종무실장을 거쳐 불교 등 종교 관련 업무에 대해 잘 아는 만큼 외연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은 챙기고 돕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인탁 기자

'최첨단' 강의에서 '나눔결사' 실천까지

변화하는 청암사승가대학 '한국불교 미래'를 가꾼다

전국 승가대학들이 '전통강원'이라는 이미지를 벗고 현대적인 시스템과 강의로 현대사회와 조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이 가운데 김천 청암사 승가대학은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스님)는 승가대학과 율원 스님 21명이 사회복지학 학사 자격을 취득하게 됐다고 최근 밝혔다. 청암사 승가대학과 율원은 지난 2010년 3월 구미1대학 특수보육계열 아동복지과에 입학했고, 2년간의 교육과정을 거쳐 이번에 첫 졸업생을 배출하게 됐다. '불교복지 지도자' 양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청암사 승가대학이 노력한 결과가 드러나게 된 것이다. 내년 2월 졸업하게 되는 21명의 학인 스님들은 아동복지 전문학사와 함께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실기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다.

청암사의 이같은 원력은 승가

강원·율원 스님 21명
사회복지학 학사 취득
사회연계 프로그램 도입
"교육기회 지속적 제공"

대학장이자 율원장인 지형스님의 결단이 배경이 됐다. 복지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전문성을 갖춰 대승보살의 역할을 실현하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2년 만에 첫 성과를 거두게 된 것이다. 학인 스님들은 대학을 졸업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여성가족부 인증 가정폭력전문상담원 자격을 취득한 데 이어, 노인요양보호사 자격증도 취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청암사 승가대학은 지난 9월 스마트 캠퍼스 구축 및 '참살이'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등 현대사회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학사 자격 취득으로 '중생구제'라는 불교의 원력을 실천해 한국불교의 미래 희망을 살찌우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청암사 승가대학장 지형스님은 "승가대학과 율원에서는 향후에도 학인 스님들에게 사회와 연계된 전문프로그램 교육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템플스테이 운영 역량 '제고'

종령 입법예고

템플스테이 사업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해 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고 한국전통문화의 국제화와 대중화를 위한 종령이 제정된다. 조계종 총무원(총무원장 자승스님)은 '템플스테이 사찰 지정 및 운영에 대한 령'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종령은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에 대한 지정과 해지, 의무와 혜택 등 지원 내용을 법제화해 운영사찰의 표준화를 기한다는 취지를 갖고 있다. 또 지원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운영사찰의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이 있다. 종령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운영사찰은 최소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연간 500명 이상 참가자를 유지해야 한다. 또 지도법사와 함께 1인 이상의 전담실무자를 배치해야 한다. 문화사업단은 매년 운영사찰 평가를 실시하며, 등급에 따라 경고와 해지사찰을 정한다.

운영사찰은 시설보조금 및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금, 문화사업단의 교육·연수·홍보지원, 포상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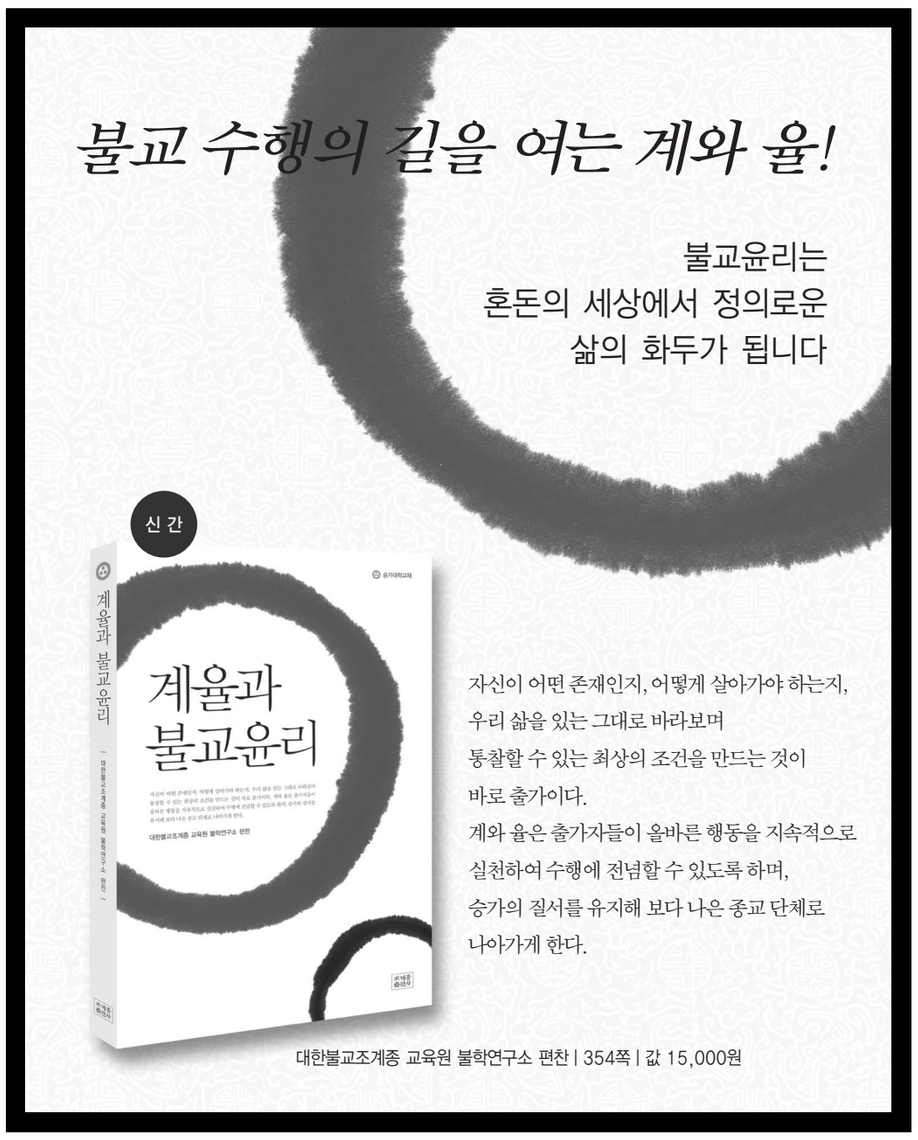
이번에 입법예고된 종령에 대한 의견은 오는 10일까지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 제출하면 되며, 종령 전문은 조계종 홈페이지에 수록돼 있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

2012 불교신문 신춘문예 공모
12월14일 마감 www.ibulgyo.com

종단협의회 차원 태국돕기 나선다

종단협이 태국 홍수사태를 복구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는 지난 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제3차 이사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조계종이 선발대에 이어 두 차례에 걸쳐 태국에서 직접 구호사업을 전개해 모범이 되고 있는 가운데, 종단협의 지원 결정은 전체 한국불교계의 자비행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단협 차원의 태국 구호기금은 이르면 이달 말까지 각 종단별로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 내년 1월 초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불기2556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제14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결과보고, 기부금 영수증 부정발급 예방 등이 안건으로 논의됐다.

김하영 기자 hykim@ibulgyo.com